

전남도, 천연물산업 본격 육성...2030년까지 매출 3조 목표

천연자원·산업화 기반 바탕, 원재료 가공해 고부가가치 창출 연구개발·표준화 등 3대 분야에 9800억 투자 25종 상품개발

전남도가 천연물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해 연구개발, 기업 지원 등 3대 분야에 9800억 원을 투자, 2030년까지 매출 3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6일 장흥 천연물 건조지원시설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정중순 장흥군수, 바이오기업 대표와 연구기관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30 천연물 산업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전남도는 선포식에서 비교우위 천연자원과 산업

화 기반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및 연구개발(R&D), 표준화 및 생산·가공 인프라, 기업 지원, 3대 분야 46개 과제에 총 9819억원을 투자해 25종의 히트상품을 개발하고, 매출 50억원 이상의 앵커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안정적인 천연물 확보를 위해 계약재배를 현재보다 약 60배 많은 1600ha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천연물산업은 자연에서 나는 천연물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폴리코사놀',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아스피린' 등이 대표적이다. 원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고부가가치가 창출하는 산업이다. 실제로 미역귀는 원재료로 kg당 4000원에 불과하지만, 그 기능성 추출물인 알긴산은 kg당 400만원으로 가치가 1000배나 높아진다.

전남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200여 생물이 자생하고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R&D부터 임상시험, 소재생산, 제품화에 이르는 천연물의 전주기 산업화 인프라를 구축했다.

전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1500종의 천연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264건을 특허 등록했고, 기업과 함께 울금, 비파잎, 차즈기 등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5건을 출시했다. 또한 멸종위기로 판

절염 치료 신약, 모새나무로 우울증 치료 신약을 임상시험 중이다. 이와 함께 천연물 연구·생산·인증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장흥에 천연물 GAP/GMP 연계처리시스템과 진균류 소재 상용화 실험 시설을, 화순에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을, 완도에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과 해양바이오 기업 유치 스타트업센터를 구축 중이다.

앞으로 천연물 산업화에 필수적인 국제규격의 표준화 시스템을 확립하고 인증할 국가기관을 유치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글로벌 천연물산업을 선점할 계획이다.

행사에서 전남도와 장흥군은 (주)코스맥스바이오, (주)내추럴엔도텍과 업무협약을 하고, 전남 천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천연자원을 보유한 천연물의 보고이자, 대한민국 천연물산업을 이끌 최적지"라며 "동등한 천연물산업의 성과와 노후를 토대로 올해를 '천연물산업 진흥 원년'으로 정해 천연물산업 글로벌 허브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비전선포식 후에는 '천연물 건조지원시설' 준공식이 개최됐다. '천연물 건조지원시설'은 전남도와 장흥군에서 공동 건립한 시설로, 천연물 세척, 절단, 건조, 포장, 이물질검사 등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해 천연물 생산 농가 지원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으로서 천연물의 가치를 크게 높일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여름철 고수온 피해 예방에 총력

수온측정기·산소발생기 등 장비구입 30억 지원

전남도가 최근 고수온에 따른 어패류 폐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식장에 산소공급기를 비롯한 대응 장비 구입에 3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27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기성청에 따르면 대마난류 강화로 전남 연안 수온이 평년보다 섭씨 0.5~1도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남 합평만 해역엔 지난 20일 고수온경보가 발령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이른 것으로, 양식장 밀집 해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양식수산물 입식 및 재고량 조사를 하고 해양수산과학원, 시군, 어업인 대표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고수온 대응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또 완도, 장흥, 고흥, 여수 등 우심 해역 수

산양식 현장에 수온측정기 140개소를 설치해 수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 발생에 따른 어업인 신속 대응 시스템도 구축했다. 양식장에는 산소발생기, 액화산소, 차광막 등 고수온 대응 장비를 가동, 수온 상승에 따른 사료 급이량 조절, 가두리 어망 청소 실시 등 사전 점검을 해 고수온 피해 최소화해 온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양식장 산소공급기, 액화산소 공급, 선박 입차, 폐사어 처리, 가두리 시설 현대화 등에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수온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어업 현장에서도 양식장 관리요령을 숙지하고 매뉴얼에 따른 어장 관리, 보험 가입, 입식 신고, 표준 사육량 준수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미래 전남 농업 이끈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교육'

52명 선발 전문인력 양성

전남도는 제2기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생 52명을 최종 선발, 미래 전남 농업을 이끌 전문 인력으로 양성한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교육'은 20개월간 스마트팜에 특화된 현장실습 중심으로 이뤄진다. 실제 독립경영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끄도록 하는 전문 농업교육 과정이다. 스마트팜 취업이나 창업을 바라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이 대상이다.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선발 인원 52명 대비 132명이 지원,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39명, 여성 13명이다. 평균연령은 30.8세다. 선호품목은 딸기 27명, 토마토 13명 등 순이다. 전남 거주자가 30명으로 58%를 차지했다. 선발 인원의 81%가 농업 외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로, 스마트팜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도전한 청년이 상당수였다. 교육은 오는 9월 1일 시작해 20개월간 무상으로 진행된다. 수료생에게는 스마트팜 창업에 필요한 종잣돈을 마련하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농장 입주 우선권(교육 우수자)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자격 부여 ▲농신보 보증비용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미래 스마트농업을 선도할 청년창업농을 양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1330억원을 들여 고흥 도덕면 가야리 일원에 33ha 규모로 보육온실과 실증단지, 지원센터 등을 구축 중이다. 오는 2022년 1월까지 청년창업 보육온실을 준공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우럭조개 45만 마리 여수해역 방류

전남해수원, 국내 최초 종자 생산 성공...양식 기술 개발도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원장 박준택)은 국내 최초 종자 생산에 성공한 우럭조개의 인공종자 방류를 여수해역에 방류했다. (사진)

우럭조개는 국내 남서해안 조건엔 하부 사니질 지역에 서식하며 수관과 내장을 식용하는 이매패류다. 수관의 독특한 식감이 대중에게 점차 알려지면서 최근 손질한 냉동조개살의 형태로 1kg당 4만원에 유통되고 있다.

국내에서 왕우럭조개와 함께 2009년 16t 가량이 생산됐으나, 이후 생산량이 급감해 가격이 오르고 시장에서 귀한 수산물로 대접받고 있다. 지속적인 자원관리에 의한 대량생산이 이뤄진다면 단일품목

으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업적 기대치가 높은 품종이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서 방류한 인공종자는 양식기술 연구용으로 생산한 7mm 종자 45만 마리다. 여수 화양면 수문, 돌산을 평사·항대·금천에 살포했다. 이 해역은 우럭조개 자연서식지로 종자 방류로 인한 자원 증감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곳이다.

박준택 원장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우럭조개 종자 방류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인공종자 양식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여성가족재단, 상의 4곳과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나서



전남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최근 목포·순천·여수·광양 4개 상공회의소와 기업의 일·생활 균형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와 지역상공회의소는 전남지역 기업의 일·생활균형을 위한 컨설팅,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일자리 연계 및 사업 발굴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지원,

기업 지원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일·생활 균형 정책 제안, 일자리 연계 및 창업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안경주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특히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조화 속에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